



목도리 60배 ↑ 마스크 12배 ↑ … “생큐, 서베리아”

(서울+시베리아:서울이 시베리아가 됐다는 의미)

방한용품 유통업계는 지금 웃음꽃

연일 북극한파…전기요·손난로 등 볼티 모바일 장보기 급증…티몬 매출 급상승 최근엔 동파방지히터·보온테이프 인기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는 ‘북극한파’가 계속되면서 각종 보온의류부터 난방가전, 수도 동파방지 제품 등 방한관련 상품의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티몬이 22일부터 25일까지 방한용품 매출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방가전이 87%나 늘었다. 전기요와 전기장판은 168% 증가했고, 온풍기는 40%, 전기히터는 29% 상승했다. USB 손난로 등 휴대용 난방용품도 71%나 뛰었다. 벚위머와 스카프, 장갑 등 잡화류도 79%가량 매출이 증가했다. 겨울철 필수휴대품이 된 핫팩은 115% 늘었으며, 난방텐트도 34%가량 매출이 상승했다.

한파로 외출을 삼가하고 대신 온라인으로 식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티몬 수퍼마켓 매출도 130%늘었다. 임석훈 티몬 리빙본부장은 “기록적 한파가 찾아오며 구매와



배송이 편리한 모바일 채널을 활용해 방한용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몰도 마찬가지였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이 18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 방한의류인 발열조끼와 발열내의 판매가 각각 124%, 146%나 증가했다. 핫팩, 귀마개, 열풍기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65%, 51%, 216% 늘었다.

옥션의 경우는 22일부터 24일까지 방한용품 판매를 조사한 결과 귀마개가 220%나 늘었다.

특히 목도리의 경우는 무려 666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기컨베터, 온풍기, 마스크 판매도 87%, 400%, 1256% 등 엄청난 판매 상승세를 기록했다.

강추위에 수도배관 동파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용품 판매도 크게 늘었다. 써머프플랫폼이 운영하는 가격비교 사이트 ‘에누리 가격비교’에 따르면 18일부터 24일까지 동파방지 제품 매출은 전주와 비교해 57% 상승했다.

주문 수와 주문 수량도 전주에 비해 각각



▲서울 오픈 한 전자용품매장에 진열된 전열기. 강추위로 인해 난방가전제품이 전년 대비 품목별로 매출 80%, 판매 400%까지 올랐다. 스포츠동아DB

◀매서온 한파가 계속되면서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중무장한 시민들이 출근길 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강추위로 인해 보온의류부터 난방가전, 수도 동파방지 제품 등 방한관련 상품 매출이 크게 늘면서 유통업계가 예상 못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스포츠동아DB

29%, 133% 증가했다. 특히 수도동파방지 히터와 보온 테이프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누리 가격비교 담당자는 “최근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고 수도배관이나 보일러 동파 사고가 이어지면서 1월 4주차부터 동파방지 용품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기간 히터나 온풍기, 보일러와 같은 방한용품보다 오히려 동파방지 용품 구매가 더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평창·강릉·정선…‘열린 관광지’ 시범여행

장애인·어르신 등 불편없이 관광 문제부·관광공사 31일부터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장애인과 어르신 등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역의 ‘열린 관광지’를 방문하는 시범여행을 진행한다.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이 이동 불편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관광지를 말한다. 2017년까지 17개소가 조성 중 또는 완료되었고, 2022년까지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여행은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하는 ‘평창 여행의 달’을 앞두고 평창, 강릉, 정선 등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찾는다.

‘불타는 청춘 2탄’이란 이름으로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시범여행은 65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내여행정보 홈페이지와 앱 이벤트를 통해 참가자 40여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2박3일의 일정 동안 정선 삼탄아트마인,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 평창허브나라, 아리랑시장 등을 방문한다. 문제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에 앞서 25일과 26일에는 장애인과 동반자 40여명을 초청해 정선과 강릉, 평창, 오대산 전나무 숲 등을 방문했다.

한국관광공사 양수배 관광복지팀장은 “열린 관광지 17개소의 장애인 주차장, 화장실, 경사로를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용 위한 촉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개선사업을 완료 및 준공 중에 있다. 이번에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제현장.jpg

기아차, 호주오픈 공식 후원 2023년까지 연장



기아차는 27일(현지시간)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파크에서 호주오픈 최상위 후원사 계약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호주오픈 후원 계약 조인식’을 가졌다. 기아차는 2002년 첫 후원을 시작한 이후 17년째 호주오픈을 공식 후원하고 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2023년까지 22년간 최상위 후원사를 맡게 됐다. 기아차는 후원 첫 해 약 7900만 달러 가치의 홍보 효과를 거두었고, 2017년 약 5억1000만 달러의 글로벌 홍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청원 선수의 활약으로 호주오픈이 국민적 관심사로 주목받으면서 국내 홍보 효과도 일었다.

사진 | 뉴시스



삼성전자가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스트바이 매장에 전시된 삼성 패밀리허브 냉장고. 사진제공 | 삼성전자

삼성전자, 美 생활가전 2년 연속 1위

4분기 점유율 첫 20%대 돌파

미국 시장조사기관 트랙라인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브랜드별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21.0%의 점유율(금액 기준)로 1위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처음으로 20%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7분기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19.5%의 시장

점유율로 1위에 오르며 미국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품목별로는 패밀리허브, 플렉스워시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가 냉장고·세탁기 품목에서 1위를 만들었다. 또 조리기기 제품군도 시장 점유율이 상승해 선두와의 간격을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익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현지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하고 이에 맞는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소비자 체험 마케팅을 강화한 결과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마사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금 50억 기부

한국마사회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기부금 50억원을 집행한다. 한국마사회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6일 조직위 서울사무소에서 기부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이희범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세계인의 축제이자 국가적 행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기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자원봉사인력 파견, 입장권 구매 및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관람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핏넷, 덕성여대와 산학협력 MOU 체결

반려동물 헬스케어 스타트업 핏넷은 덕성여대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덕성여대 프리팜메드학과 주황수 교수 연구팀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질병 감지 알고리즘 공동연구 개발 및 특허 출원 산학 협력이다. 핏넷은 주력 상품인 소변검사키트 여헤드의 검사 알고리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번 산학협력을 진행한다. 여헤드는 소변을 반응시킨 후 스마트폰 촬영 한 번이면 신장 질환, 요로결석 등 9가지 질병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핏넷은 설립 6개월 만에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단말기를 이용한 소변검사 시스템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약 1억여 원의 정부지원금을 획득하는 등 핏넷

크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용운 기자

KT 황창규 회장, 감염병 확산방지 구축 제안



KT 황창규 회장(사진 오른쪽)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례총회에서 세계가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는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GEPP) 구축을 제안했다. GEPP는 WHO와 같은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감염병 정보를 파악해 각국 보건당국 및 개인에게 전달하는 플랫폼이다. 황 회장은 GEPP를 통해 평상시에는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위험정보를 파악·제공하고,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같이 위급시에는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의 감염병 발생지역 방문정보를 파악해 이용자에게 위험안내 서비스 제공하는 방안을 내놴다. KT는 지난해 10월 세계경제포럼(WEF)과 파트너십 체결 후 ‘보건과 헬스케어의 미래’, ‘디지털 경제와 사회의 미래’, ‘에너지의 미래’ 3개 그룹에서 활동 중이다. 김영근 기자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22일~26일

코스피지수	2574.76	▲	+54.50
코스닥지수	913.12	▲	+33.13
日 닛케이 지수	2만3631.88	▼	-176.18
中 상하이 종합	3558.13	▲	+70.27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22	▲	+0.05
환율 (원·달러)	1066.50	▲	+0.6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6426.82	▲	+553.82

지수는 26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오늘의 얼굴

이문환 BC카드 사장, 공식 취임



이문환 BC카드 신임 사장(사진)이 26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이문환 사장은 고객 편의 기반 결제 프로세스 디지털화, 글로벌 카드사업의 확산 및 내실화, 중소 벤처·스타트업과의 상생 등 세 가지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BC카드가 가진 디지털 역량과 프로세스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먼저 찾는 카드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시장에서 편리하게 결제하거나 외국인 고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글로벌 사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통과 협력이 성과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회원과 BC카드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 스타트업과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했다.

비즈 TALK TALK

●“가상화폐 투기 엄중 대응, 블록체인은 지원” (김동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신문화증권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투기 과열에 바람직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 부처가 의견을 같이한다며)

●“대마불사 착각 못 버리면 모두 공멸” (윤갑환 현대차 울산공장장, 34년의 현대차 근무를 마치는 퇴임식에서 “큰 기업도 지속적으로 갈등에 시달리면 쓰러지는데, ‘우리 회사는 괜찮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금융자문서비스 상담 절반은 ‘빚 관리’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무료 금융자문서비스에서 절반 가까운 상담이 부채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문서비스는 금융전문가가 1대 1로 부채관리, 노후준비, 자금관리 방법 등을 조언해주는 것으로 2015년 4월 도입했다. 지난해 금융자문서비스 건수는 총 1만 5975건.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부채관리 상담이 7534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피해 예방·보호 2856건(17.9%), 저축·투자 150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6410건(40.1%), 5281건(33.1%)으로 상담 건수의 대부분(73.2%)을 차지했다.	

● 금융자문서비스 상담 유형

	상담건수(비율)
부채관리	7534건(47.2%)
금융피해 예방·보호	2856건(17.9%)
저축·투자	1507건(9.4%)

● 금융자문서비스 상담 방식

	건수(비율)
전화	1만4255건(89.2%)
모바일·PC	1483건(9.3%)
방문	237건(1.5%)

편집 | 이수진 기자